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107

JCCT 2024-3-14

발달장애 청소년의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연구

A Study on the vocabular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Leisure and Recreation

김화수*, 김은홍**, 양지원**, 이지우***, 이주현****

Wha-Soo Kim*, Eun-Hong Kim**, Ji-Won Yang**, Ji-Woo Lee***, Ju-Hyeon Lee****

요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어휘 및 문제해결 특성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의 여가 활동 교육 및 지원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수용 언어 연령에 따른 두 집단(10세 미만, 10세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 언어 연령에 따른 두 집단 간 여가 어휘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수용 언어 연령에 따른 두 집단 간 문제해결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집단별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 집단은 초급 수준의 어휘와 초급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10세 이상 집단은 중급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과 고급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어휘에 대한 오반응을 분석한 결과, 정답인 어휘와 유사한 주제의 어휘를 오답으로 고르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오반응을 분석한 결과,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문항에서 오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원활한 여가 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관련 교육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공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발달장애 청소년, 여가, 레크리에이션, 어휘, 문제해결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vocabulary and problem-solving ability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lated to leisure and recreation and use them as basic data in education and support of recreation activities for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comprised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receptive language age: those under 10 years old and those 10 years and older.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eisure and recreation vocabulary betwee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receptive language ag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blem-solving ability between the two groups based on their receptive language age. Third,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leisure and recreation vocabulary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within each group revealed that the under 10 years old group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in basic vocabulary and basic problem-solving abilities, while the 10 years and older group exhibited the highest correlation in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of problem-solving abilities. Fourth, the analysis of incorrect responses to leisure and recreation vocabulary showed a high rate of selecting vocabulary related to similar topics as incorrect answers. Additionally, the analysis of overreactions to problem-solving abilities indicated an increasing tendency of incorrect responses in items requiring context comprehension. Additionally, the analysis of incorrect responses to problem-solving abilities indicated a tendency of higher error rates in items requiring context comprehen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nsights for discussing directions in communication-related skills education for the smooth recreation life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ly,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educational and support programs aimed at the successful recreation activities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 adolesc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eisure, recreation, vocabulary, problem-solving ability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제1저자)

Received: January 5, 2024 / Revised: January 22, 2024

**준회원, 대구대학교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

Accepted: January 31, 2024

(참여저자)

****Corresponding Author: 5124aegod@naver.com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겸임교수 (참여저자)

Dep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Daegu Univ, Korea

****준회원, 대구대학교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1월 22일

게재확정일: 2024년 1월 31일

I. 서론

여가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휴식을 겸한 다양한 취미활동이 포함되는 경제 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뜻하며, 자유시간 또는 레저라고도 불린다. 여가는 일상생활로부터 아무런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 단순한 휴식이나 기분전환,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1-2].

여가 활동은 정신적 및 신체적 피로를 풀게 해주며 사회생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나 욕구불만, 갈등, 좌절감, 정서적 불안 등을 해소 시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3]. 또한 사회적 역할 수행의 기술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할 수 있는 자기 계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현대 사회는 노동 시간의 단축, 삶의 질 향상, 여가 활동의 확대로 인하여 여가의 대중화, 보편화 현상이 가속화 되었고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여가는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4].

특히 청소년 시기의 여가 활동은 자신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 성취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 즐겁게 건전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5]. 김관훈[6]은 청소년의 경우 여가 활동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인지적·행동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낮추고 예방하는 방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7]에 따르면, 1년간 가장 많이 한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56.3%)을 꼽았으며, 컴퓨터 사용이 19.2%, 음악감상이 6.6%, 스포츠 활동이 3.5% 순으로 나타나 주로 집에서 하는 여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의 경우 일정 부분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71.0%이며, 이때 일정 부분 이상 도움을 받아야 의사소통 가능한 발달장애인이 62.2%로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여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선경[8]이 주장한 발달장애인은 외출하는 데 있어 혼자 힘만으로는 제약

이 크며, 통학 및 통근만이 외출의 주목적이기에 낮 시간을 유의미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발달장애인의 여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의 여가와 관련된 연구로는 여가활동에 관한 문헌 연구[9-10], 여가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11-17], 여가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18-20],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21-23], 발달장애인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4-28]가 있으며, 이 외에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독립변수로 설정되어 신체적 자기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29], 여가동기·여가태도·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30], 자기결정기술 사용 변화를 살펴본 연구[31]가 있다. 여가와 관련된 요소들이 종속변수로 설정된 연구에는 교수법이 여가활용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32], 가상현실 관련 활동이 여가만족도·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33], 체육수업이 여가 스포츠 역량에 미치는 영향 및 경험을 살펴본 연구[34]가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와 관련된 어휘력 및 문제해결능력과 같이 언어 능력에 해당하는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언어연령별 여가와 관련된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어휘와 문제해결 능력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의 여가와 관련된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 생활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 및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만 19세~24세에 해당하는 발달장애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 (1) 병원 및 장애 관련 센터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진단 받은 발달장애 청소년.

- (2) 경북 지역 고등교육기관인 평생교육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생활연령 19~24세 사이인 발달장애 청소년.
- (3) 정서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행동장애 등 감각장애 및 동반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 청소년.

표 1. 연구대상자의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s

분류		n (%)
성별	여자	4 (13.33)
	남자	26 (86.67)
생활연령	19세	9 (30.00)
	20세	7 (23.33)
	21세	6 (20.00)
	22~24세	8 (26.67)

언어 연령에 따른 여가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을 보기 위해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의 수용 언어 연령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집단은 수용 어휘 기준 10세 미만 집단 15명, 10세 이상 집단 15명으로 나뉘었으며, 자세한 대상자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집단에 따른 대상자 정보
 Table 2. Information of subjects by group

번호	수용 어휘 10세 미만 집단				수용 어휘 10세 이상 집단			
	생활 연령	성별	구분	언어 연령	생활 연령	성별	구분	언어 연령
1	19	남	지적	8	19	남	자폐	10
2	19	남	지적	9	19	남	지적	11
3	20	남	자폐	6	19	남	지적	11
4	20	남	지적	8	19	남	지적	13
5	20	남	지적	9	19	남	지적	13
6	21	남	지적	5	19	남	지적	16
7	21	남	지적	9	19	여	지적	16
8	21	남	지적	9	20	남	지적	10
9	21	남	지적	9	20	남	자폐	12
10	22	여	지적	6	20	여	지적	14
11	22	남	지적	7	20	여	지적	16
12	23	남	지적	5	21	남	자폐	13
13	23	남	지적	7	21	남	자폐	16
14	23	남	지적	9	22	남	지적	12
15	24	남	지적	7	23	남	자폐	10

2. 연구도구

1) 여가 관련 어휘력 검사도구

본 검사는 연구자가 대상자들의 여가 관련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고,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립국어원의 어휘 주제 및 기능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 별로 여가와 관련된 주제 총 32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 내에서 여가와 관련된 명사와 동사 어휘를 선정한 결과, 명사와 동사를 일정 비율로 맞추어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 별로 여가 관련 어휘를 30개씩 선정하였다. 수준별 30문항씩 총 90문항을 제작 후 발달장애 청소년 언어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가(언어치료 전공 석사과정 3명, 박사과정 4명, 교수 1명)의 검증 후, 최종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 별 15개씩 총 45문항으로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문항은 4지 선다형으로, 어휘의 정의를 주고 보기의 네 가지 어휘 중에서 하나의 맞는 어휘를 고르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어휘 정의가 기술되었으며, 선정된 어휘의 정의를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과 주제의 어휘로 오답을 제시하였다. 여가 관련 어휘력 검사 문항의 예시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여가 관련 어휘력 검사 문항 예시
 Table 3. Example of leisure-related vocabulary test questions

1. 재밌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든 것. ()
① 소설 ② 방송 ③ 만화 ④ 산책

2) 여가 관련 문제해결력 검사 도구

발달장애 청소년의 여가 관련 문제해결력을 알아보기 위해 여가 관련 어휘력 검사 도구와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의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 별로 여가 관련 어휘 45개를 선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은 4지 선다형으로, 가상 인물 두 명의 대화를 통해 여가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상황이 제시되어 네 가지 해결방안 중 하나의 올바른 해결방안 고르는 방식으로 총 30문항으로 제작되었다. 문항에 대해 발달장애 청소년 언어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가(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 3명, 박사과정 4명, 교수 1명)의 자문을 통

해 타당도 확인 후 상황과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 별 10개씩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대화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기술되었으며, 제시된 상황에 대해 관련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해결방안을 오답으로 제시하였다. 여가 관련 어휘력 검사 문항의 예시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여가 관련 문제해결력 검사 문항 예시

Table 4. Example of leisure-related problem solving ability test questions

<p>1. 아래의 상황에서 민수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 민수: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사기에는 너무 비싸네. 진야: 근처에 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p> <p>① 쓰레기를 버린다. ②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낸다. ③ 도서관을 찾아 책을 빌린다. ④ 우산을 챙긴다.</p>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여가와 관련한 어휘와 문제해결능력 특성을 보기 위해 어휘 검사와 문제해결능력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이후 예비연구 및 본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연구에는 발달장애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가 관련 어휘 및 문제해결능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및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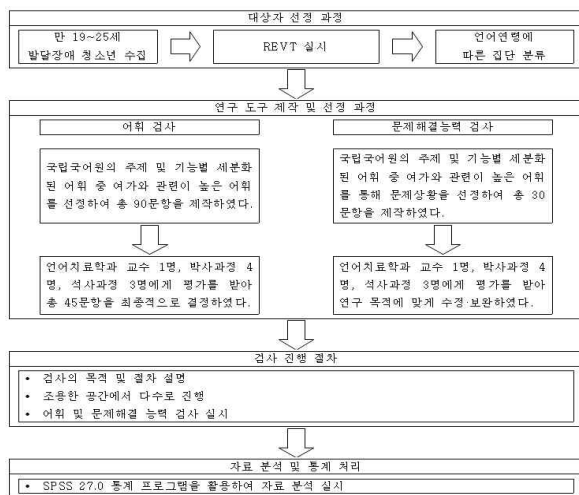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Figure 1. Research procedures

1) 예비연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검사 도구의 적절성과 보완점을 검토하고 소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와 부합하는 선정 기준을 가진 대상자 2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내용의 난이도, 검사 진행 절차, 적절한 검사 소요시간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호한 문항과 부적절하게 쓰인 단어를 수정함으로써 보완하였다.

2) 본연구

본 연구는 2023년 10월 한 달 동안 경북지역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기관에서 만 19~25세에 해당하는 발달장애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빛이 잘 드는 조용한 공간에서 일정 거리를 두게 한 뒤 다수로 진행하였다. 본 검사는 어휘 검사, 문제해결 능력 검사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 검사 목적을 설명한 뒤에 연습 문항을 통해 대상자가 검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사자가 직접 검사도구 내의 텍스트를 읽어주면 대상자는 이를 듣고 사지선다로 제시된 보기 내에서 올바른 문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검사 시간은 각각 20~30분이 소요되었다.

본 어휘 검사는 연습 문항 1개와 본 문항 45개로 구성되었고, 문제해결 능력 검사는 연습 문항 1개와 본 문항 30개로 구성되었다. 두 검사 모두 바르게 판단한 문항은 각 1점, 오답이나 답을 하지 않은 문항은 각 0점으로 채점하였다. 이에 따라 어휘 검사도구는 45점, 문제해결 능력 검사도구는 30점을 만점으로 처리하였다.

4. 연구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7.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언어 능력에 따른 두 집단의 여가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전체 점수간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여가 어휘와 문제해결 능력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급 수준의 어휘 및 문제해결 문항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집단 간 여가 어휘 능력 평균 비교 결과

언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여가와 관련한 어휘 능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1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24.27(SD=9.72),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은 36.00(SD=6.04)로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각 집단의 여가 어휘 점수 평균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표 5. 집단 간 전체 여가 어휘 점수 평균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leisure vocabulary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언어 연령 10세 미만	15	24.27	9.72	-3.972 (.021)*
언어 연령 10세 이상	15	36.00	6.04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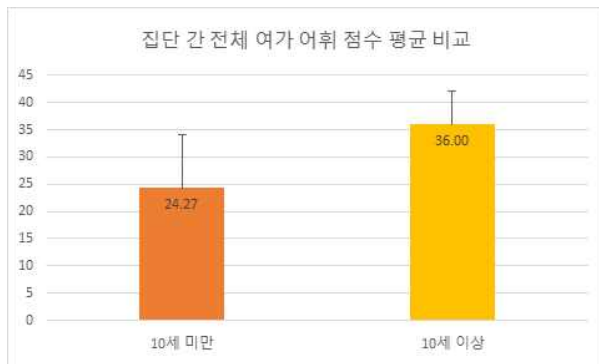


그림 2. 집단 간 전체 여가 어휘 점수 평균 비교
 Figure 2. Comparison of leisure vocabulary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1) 초급 수준 여가 어휘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언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여가와 관련한 초급 수준의 어휘 능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1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9.07(SD=4.59),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은 12.93(SD=2.05)로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6. 집단 간 초급 수준 여가 어휘 평균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beginner leisure vocabulary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언어 연령 10세 미만	15	9.07	4.59	-2.979 (.000)***
언어 연령 10세 이상	15	12.93	2.05	

*** $p<.001$

2) 중급 수준 여가 어휘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언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여가와 관련한 중급 수준의 어휘 능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1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9.47(SD=3.98),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은 12.93(SD=2.15)로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표 7. 집단 간 중급 수준 여가 어휘 평균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intermediate leisure vocabulary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언어 연령 10세 미만	15	9.47	3.98	-2.967 (.011)*
언어 연령 10세 이상	15	12.93	2.15	

* $p<.05$

3) 고급 수준 여가 어휘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언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여가와 관련한 고급 수준의 어휘 능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1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5.73(SD=2.12),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은 10.13(SD=2.45)로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집단 간 고급 수준 여가 어휘 평균 비교

Table 8. Comparison of advanced leisure vocabulary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언어 연령 10세 미만	15	5.73	2.12	-5.265 (.819)
언어 연령 10세 이상	15	10.13	2.45	

언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수준(초급, 중급, 고급)별 여가 어휘 능력의 평균 비교 결과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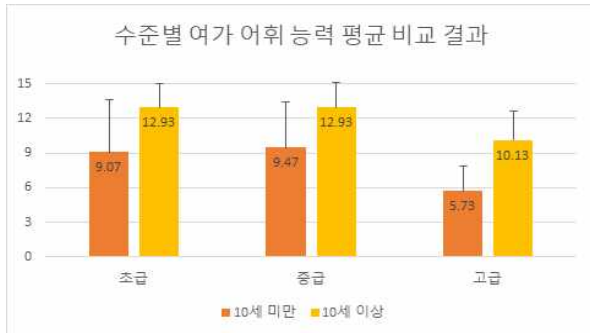


그림 3. 수준별 여가 어휘 능력 평균 비교 결과
Figure 3. Comparison results of leisure vocabulary ability average by level

2. 집단 간 문제해결 능력 평균 비교 결과

언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여가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1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14.67(SD=8.91),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은 23.20(SD=6.26)로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각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 점수 평균 그래프는 그림 4와 같다.

표 9. 집단 간 여가 상황에 대한 전체 문제해결 능력 점수 평균 비교
Table 9. Comparison of problem-solving ability average scores for leisure situations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언어 연령 10세 미만	15	14.67	8.91	-3.035 (.008)**
언어 연령 10세 이상	15	23.20	6.26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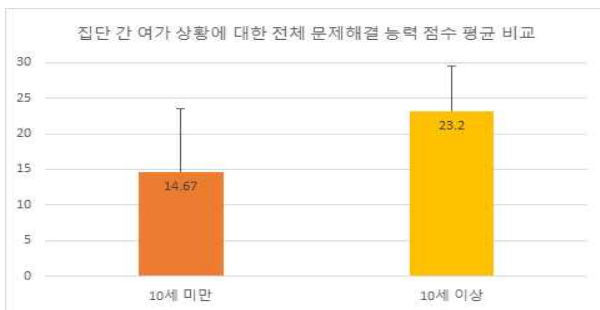


그림 4. 집단 간 여가 상황에 대한 전체 문제해결 능력 점수 평균 비교
Figure 4. Comparison of problem-solving ability average scores for leisure situations between groups

1) 초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언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여가 상황에서의 초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1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5.67(SD=3.48),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은 8.60(SD=1.84)로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표 10. 집단 간 초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평균 비교
Table 10. Comparison of beginner leisure problem-solving ability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언어 연령 10세 미만	15	5.67	3.48	-2.886 (.000)***
언어 연령 10세 이상	15	8.60	1.84	

*** $p < .001$

2) 중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언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여가 상황에서의 중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이 1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4.87(SD=3.40),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은 7.60(SD=2.47)로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표 11. 집단 간 중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평균 비교
Table 11. Comparison of intermediate leisure problem-solving ability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언어 연령 10세 미만	15	4.87	3.40	-2.519 (.021)*
언어 연령 10세 이상	15	7.60	2.47	

* $p < .05$

3) 고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평균 점수 비교 결과

언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여가 상황에서의 고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이 1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4.13(SD=2.59),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은 7.00(SD=2.33)으로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집단 간 고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평균 비교
 Table 12. Comparison of advanced leisure problem-solving ability average scores between groups

구분	N	M	SD	t(p)
언어 연령 10세 미만	15	4.13	2.59	-3.189 (.384)
언어 연령 10세 이상	15	7.00	2.33	

언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수준(초급, 중급, 고급)별 여가 어휘 능력의 평균 비교 결과는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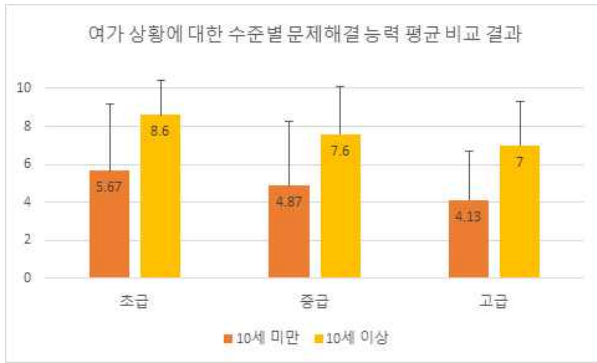


그림 5. 여가 상황에 대한 수준별 문제해결 능력 평균 비교 결과
 Figure 5. Comparison results of problem-solving ability average for leisure situation by level

3. 집단별 여가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간 상관관계

1) 언어 연령 10세 미만 집단의 여가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간 상관관계

10세 미만 집단의 수준별 여가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초급 수준의 어휘와 초급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에서 .941($p < .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휘 초급-어휘 고급’, ‘어휘 고급-문제해결 초급’, ‘어휘 고급-문제해결 중급’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언어 연령과 수준별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언어 연령은 초급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에서만 .568($p < .01$)로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3. 언어 연령 10세 미만 집단의 여가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간 상관관계

Table 1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eisure vocabular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groups under the age of 10

구분	어휘 초급	어휘 중급	어휘 고급	문제 해결 초급	문제 해결 중급	문제 해결 고급
어휘 초급	1					
어휘 중급	.921**	1				
어휘 고급	.501	.575*	1			
문제 해결 초급	.941**	.853**	.500	1		
문제 해결 중급	.916**	.866**	.421	.890**	1	
문제 해결 고급	.739**	.708**	.541*	.759**	.814**	1

* $p < .05$, ** $p < .01$

2) 언어 연령 10세 이상 집단의 여가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간 상관관계

10세 이상 집단의 수준별 여가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중급 수준의 문제해결과 고급 수준의 문제해결에서 .868($p < .010$)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어휘 중급-문제해결 초급’, ‘어휘 고급-문제해결 초급’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 연령과 수준별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언어 연령은 초급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과 .712($p < .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초급 수준의 어휘와 중급 수준의 문제해결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언어 연령 10세 이상 집단의 여가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간 상관관계

Table 1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eisure vocabular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groups over the age of 10

구분	어휘 초급	어휘 중급	어휘 고급	문제 해결 초급	문제 해결 중급	문제 해결 고급
어휘 초급	1					
어휘 중급	.743**	1				
어휘 고급	.671**	.788**	1			

문제 해결 초급	.623**	.371	.488	1		
문제 해결 중급	.769**	.518*	.600*	.840**	1	
문제 해결 고급	.687**	.726**	.664**	.765**	.868**	1

* $p < .05$, ** $p < .01$

4. 고급 수준 여가 어휘 문항 오류 분석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의 고급 수준 여가 어휘를 문항별로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15와 같이 각 문항의 보기별 선택률을 제시하여 오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답률이 50%가 넘지 않는 문항은 총 6문항으로 나타났다. 9번 문항의 정답률은 33.3%로 ‘낭독(글을 소리내어 읽음)’에 관한 질문이었으나, 읽는 것과 관련한 ‘낭송’, ‘독서’, 글을 소리 낸다는 ‘발표’가 오답으로 제시되어 어려움을 보였다. 12번 문항의 정답률은 26.7%로 ‘오케스트라(악기를 연주하는 단체)’에 대한 문항이나, 46.7%로 ‘합창’이 가장 높은 선택률을 보였다. 24번 문항의 정답률은 30%로 ‘삼삼오오(3-4명 또는 5-6명 사람들이 모여 같이 다니는 모습)’에 대한 문항이나, 오답 ‘웅기중기(크기가 작은 것들이 고르지 않게 모여있는 모습)’를 43.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33번 문항은 정답률 30%로 ‘거닐다(가까운 거리를 이리저리 한가롭게 걷다)’에 대한 문항이나, 정의에 나와있는 오답인 ‘한가롭다’를 43.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39번 문항의 정답률은 20%로 ‘결들이다(음식에 어울리는 다른 음식을 내어놓다)’에 대한 문항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차리다’를 60% 선택하여 가장 큰 오류를 보였다. 42번 문항의 정답률은 20%로 ‘달구다(분위기, 감정을 높아지게 하다)’에 대한 문항이나, 비슷한 의미인 ‘북받치다’를 43.3% 고르며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오답률이 50% 이상인 문항에 대한 오답률은 그림 6과 같다.

표 15. 고급 수준 여가 어휘 문항 오류 분석 결과
Table 15. Error analysis results of advanced leisure vocabulary questions

수준	문항	정답	1번 선택률		2번 선택률		3번 선택률		4번 선택률	
			%	n	%	n	%	n	%	n
고급	어휘 3번	1	73.3	22	10	3	16.7	5	0	0

어휘 6번	3	3.3	1	0	0	90	27	6.7	2
어휘 9번	2	20	6	33.3	10	23.3	7	23.3	7
어휘 12번	4	16.7	5	46.7	14	10	3	26.7	8
어휘 15번	2	3.3	1	70	21	20	6	6.7	2
어휘 18번	3	10	3	16.7	5	70	21	3.3	1
어휘 21번	4	10	3	3.3	1	16.7	5	70	21
어휘 24번	1	30	9	43.3	13	10	3	16.7	5
어휘 27번	1	56.7	17	3.3	1	30	9	10	3
어휘 30번	3	6.7	2	13.3	4	76.7	23	3.3	1
어휘 33번	2	43.3	13	30	9	26.7	8	0	0
어휘 36번	4	20	6	6.7	2	0	0	73.3	22
어휘 39번	3	10	3	60	18	20	6	10	3
어휘 42번	4	30	9	6.7	2	43.3	13	20	6
어휘 45번	1	53.3	16	13.3	4	30	9	3.3	1



그림 6. 고급 수준 여가 어휘 문항 오답률
Figure 6. Wrong answer rate of advanced leisure vocabulary questions

5. 여가 상황에 대한 고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오류 분석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의 여가 상황에 대한 고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문항별로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16과 같이 각 문항의 보기별 선택률을 제시하여 오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답률이 50%가 넘지 않는 문항은 총 4문항으로 나타났다. 3번 문항의 정답률은 40%로 음식을 먹기 전 알레르기에 관한 문제해결 질문이었으나, 문제가 일어난 후 해결 방법을 23.3%, 적절하지 않은 오답(3번, 4번)을 36.7% 선택하며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6번 문항의 정답률은 46.7%로 등산 상황에서 허기진 상황의 문제해결 질문이었으나, 등산 시 일반적

인 주의 사항인 ‘다칠 수 있으니 비상 약품을 챙긴다.’의 오답에 30% 선택률을 보였다. 12번 문항의 정답률은 46.7%로 모르는 어휘에 대한 문제해결 질문이었으나, 정답 외의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고르며 53.4%의 오답률을 보였다. 24번 문항의 정답률은 23.3%로 인과가 많은 곳에서 친구를 만나지 못한 상황의 문제해결 질문이었으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찾아오라는 보기를 40% 선택하였으며,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의 보기는 선택률 20%, ‘오기만을 기다린다’의 보기는 선택률 16.7%로 총 76.7%의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오답률이 50% 이상인 문항에 대한 오답률은 그림 7과 같다.

표 16. 여가 상황에 대한 고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문항 오류 분석 결과
 Table 16. Error analysis results of advanced leisure problem-solving ability questions

수준	문항	정답	1번 선택률		2번 선택률		3번 선택률		4번 선택률	
			%	n	%	n	%	n	%	n
고급	문제해결 3번	2	23.3	7	40	12	20	6	16.7	5
	문제해결 6번	1	46.7	14	16.7	5	6.7	2	30	9
	문제해결 9번	3	6.7	2	3.3	1	80	24	10	3
	문제해결 12번	3	26.7	8	16.7	5	46.7	14	10	3
	문제해결 15번	4	0	0	13.3	4	13.3	4	73.3	22
	문제해결 18번	3	10	3	20	6	63.3	19	6.7	2
	문제해결 21번	4	23.3	7	6.7	2	13.3	4	56.7	17
	문제해결 24번	2	20	6	23.3	7	40	12	16.7	5
	문제해결 27번	1	66.7	20	16.7	5	0	0	16.7	5
	문제해결 30번	4	6.7	2	10	3	23.3	7	6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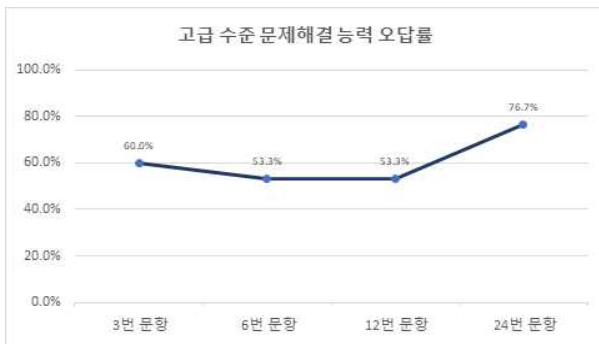


그림 7. 고급 수준 문제해결 능력 오답률
 Figure 7. Wrong answer rate of advanced leisure problem-solving ability questions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언어 연령별 여가와 관련된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용 어휘 연령 10세 미만과 수용 어휘 연령 10세 이상으로 집단을 나눠 여가와 관련된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언어 연령에 따른 두 집단(10세 미만, 10세 이상)의 집단 간 여가 어휘 능력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10세 미만 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와 관련한 어휘 능력은 언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 어휘 능력을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초급, 중급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고급 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어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언어 연령보다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언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어휘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을 제안한 최성규, 윤지연[35-36] 등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본 연구에서도 언어 연령별로 발달장애인의 여가 어휘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집단 간 문제해결 능력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1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10세 미만 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수용 언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을 수준별로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초급, 중급 수준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고급 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상대방의 말과 관점을 모두 이해하고 추론하여 응답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조망수용능력[37]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음식들 상하기 전에 빨리 냉장고에 넣자’라는 화자의 말에 대한 ‘냉동 칸에 넣을지 냉장 칸에 넣을지 모르겠어’와 같은 대답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Selman[38]에 따르면 10~15세에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점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결과와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집단별 여가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 집단에서는 초급 수준의 어휘와 초급 수준의 문제해결능력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10세 이상 집단에서는 중급 수준의 문제해결능력과 고급 수준의 문제해결능력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10세 미만 집단에서는 ‘어휘 초급-어휘 고급’, ‘어휘 고급-문제해결 초급’, ‘어휘 고급-문제해결 중급’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10세 이상 집단에서는 ‘어휘 중급-문제해결 초급’, ‘어휘 고급-문제해결 초급’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해결 능력 텍스트가 담화 형식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문장 자체의 의미보다는 대화 내 맥락 속에서 문장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39]. 이영재[40]에 따르면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가지며, 단어 자체를 해독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느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서 문제해결 능력 상황이 초급 및 중급 수준의 어휘일 경우는 순수하게 문제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나, 고급 수준일 경우는 어휘의 어려움이 적절한 문제해결을 하는 데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급 수준의 여가 어휘 평가의 정답률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문항을 살펴봤을 때 정답인 어휘와 비슷한 수준과 주제의 어휘를 오답으로 고르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오답 유형을 보아 두 집단 모두 생소한 어휘의 경우 자신이 아는 어휘의 의미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어휘는 이해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 어휘의 양이 적다고 제안한 박형규[41]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고급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 평가의 오류율이 절반 이상인 문항을 살펴봤을 때 상황 맥락을 읽어 내어 특정 문제 요소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주의 사항과 관련된 선택지 또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오답으로 고르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오답 유형을 보아 두 집단 모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학습된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높은 생활연령으로 인해 그동안 쌓인 사회적 경험과 학습경

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은 상황 맥락과 대화를 통합하고 추론하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하다고 밝힌 사진영, 김승미, 이은주[42]의 연구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여가와 관련한 어휘 및 문제해결 능력을 언어 연령 10세를 기준으로 언어 연령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추가 분석을 통해 오류 패턴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우 여가와 관련된 어휘 능력에 제한이 있으며, 여가 상황에서 문제해결 시 일반적으로 학습된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발달장애 대학생의 경우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 콘서트, 수영, 헬스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기숙사나 집에서 주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여가활동이 일상생활만족도 및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갖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차별경험은 일상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13].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성공적인 여가 활동 경험을 위해 어휘력 향상과 더불어 추론 및 조망수용능력과 관련된 화용적 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공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 [1] M.K. Kang, D.J. Lee, K.H. Yoo. "Effects of Participation of the Handicapped in Leisure Activities upon Their Life Satisfaction Depending on Disability Typ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4, pp. 137-155, 2010. UCI : G704-001932.2010.15.4.008
- [2] S.H. Kim. "The research about mental retarded students and their family's leisure states and its barrie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4.
- [3] J.D. Ok, B.C. Yoon, J.S. Yoo, J.Y. Woo. "A Survey Study of the Leisure Activitie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Hearing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11, No.3, pp. 527-549,

2010. UCI : G704-001047.2010.11.3.023
- [4] D.K. Jang. "A Study on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on Life-Satisfaction of Disabled Teenag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2013.
- [5] M.S. Lee.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Satisfaction of Juvenile Volunteers Activities in Busa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Busan National University. 2002.
- [6] K.H. Kim. "A study on athlete's factor of delinquency :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8.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rvey on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2021". 2021.
- [8] S.K. Choi. "aytime Activities Support Plan for Meaningful Days of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5, No.4, pp. 105-114, 2019.
- [9] S.K. Choi. "Practical Tasks to Secure Accessibility to Leisure Activity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 Focusing on school-community connection in the perspective of lifelong planning",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4, No.4, pp. 107-114, 2018.
- [10] J.S. Yoo. "Exploration of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dapt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port Anthrology. Vol.18, No.3, pp. 141-166, 2023.
- [11] J.S. Yoo, U.J. Kim. "A Survey Study on the Status and Preference of the Leisure Activities among College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1, No.2, pp. 75-94, 2009. DOI : 10.21075/kacs.n.2009.11.2.75
- [12] S.H. Son, Y.S. Kang, S.M. Kim. "The Study on Play Club Leisure Experien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Grounded Theoretical Approach",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19, No.1, pp. 155-184, 2019. UCI : G704-001769.2017.19.1.005
- [13] S.K. Park, S.M. Kim, S.W. Lee. "The Effects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n maintaining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aily-life satisfaction amo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40, No.40, pp. 123-149, 2018. DOI : 10.22779/kadw.2018.40.40.123
- [14] S.Y. Kang, R. Ju.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bility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tatus of Employment: Focusing on the Causal Mediation Analysis with Multiple Mediators, the Participation in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and the Status of Assistant for Job", Disability & Employment. Vol.30, No.1, pp. 5-24, 2020. DOI : 10.15707/disem.2020.30.1.001
- [15] S.W. Lee, S.M. Ha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n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seek employment of non-working Korean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ulture and Convergence. Vol.42, No.10, pp. 873-902, 2020.
- [16] J.Y. Lee. "A Study on Job Satisfaction,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 of Work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2022.
- [17] D.S. Yoo.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nd Culture Program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2023.
- [18] S.H. Kang, Y.S. Nam. "A Qualitative Study on the Saturday Leisure Activitie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17, No.2, pp. 323-347, 2015. UCI : G704-001769.2015.17.2.015
- [19] G.S. Shin.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Leisure Music Activity by Adul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2017.
- [20] S.H. Seong, G.R. Kim. "Illuminating the liv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work and leisure: The essence of the transparent box that traps them",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Vol.2, No.1, pp. 133-180, 2021.
- [21] Y.H. Chun.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Leisure Education Progra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8, No.1, pp. 135-146, 2004. UCI : G704-SER000009845.2004.8.1.007
- [22] J.S. Lee. "The action research for leisure and recreational Taekwondo program for youth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partment of Sport & Leisure Studi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6.
- [23] M.S. Lee. "The Basic Study on the Program

- Development of Modular Leisure Education Based on the Daily Living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28, No.2, pp. 25-44, 2018. DOI : 10.21024/pnuedi.28.2.201806.25
- [24] H.Y. Kwon. “The Perspectives of leisure Activitie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18, No.1, pp. 1-25, 2014. UCI : G704-SER00009845.2014.18.1.004
- [25] K.S. Lee, J.H. Jeon, M.S. Lee. “Mother’s Perception Regarding Leisure Activit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23, No.1, pp. 206-231, 2016. DOI : 10.34249/jse.2016.23.1.206
- [26] S.H. Yang, M.S. Lee. “Awareness of Parents on Leisur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51, No.2, pp. 161-186, 2016. UCI : G704-000685.2016.51.2.008
- [27] M.Y. Nam, M.S. Lee. “Experiences and Recognition of Special School Teachers on Leisur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9, no.3, pp. 1-22, 2017. DOI : 10.21075/kacs.n.2017.19.3.1
- [28] S.Y.Hwang, J.M. Sung, E.B.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care burden and depressio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leisure satisfaction”,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14, No.1, pp. 94-126, 2023. DOI : 10.36064/koddi.2023.14.1.004
- [29] J.S. Lee. “The Effect of Leisure and Recreational Taekwondo Program on Improvement of Physical Self-description for Youth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30, No.1, pp. 177-190, 2006. UCI : G704-001621.2006.30.1.006
- [30] J.A. Lee. “The Effects of A Leisure Education Program using Component 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on Free Time Motivation, Leisure Attitude and Self-Determination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7.
- [31] M.J. Ha.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isure program on the Self-determination Skill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jor in Secondary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8.
- [32] S.R. Lee. “The effects of the peer participated community-based instruction on the independent use of leisure skill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Major in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4.
- [33] H.W. Song. “Effects of Non-immersive Virtual Reality (VR) T-Ball Activity on Leisure Satisfaction and Athletic Performance of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2021.
- [34] H.J. Cho. “Analyzing the Effects and Experiences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the Competitive Area Using the Simultaneous Prompting Procedure on the Leisure Sports Competencie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2023.
- [35] S.K. Choi. “A Study on Development of Concept and Meaning Vocabularies with Mind Map for Mental Retarded”,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8 No.2, pp. 105-117, 2001.
- [36] J.Y. Yoo. “A Comparison of the Skills to Express Nouns and Verbs between Normal Children and th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ajor in Language and Speech Therapy Department of Natur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2012.
- [37] H.J. Kim. “A Study on Literary Discussion to Improve Perspective Taking Ability”, Major in Elementary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6.
- [38] Selman, R. L.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ewYork: Academic Press. 1980.
- [39]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Oxford. 1962.
- [40] Y.J.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ASS Cognitive Processes and Reading Skill in the Mentally Retarde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2000.
- [41] H.K. Park. “The Vocabulary Comprehension Special Quality Analysi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 [42] J.Y. Sa, S.M. Seung, E.J. Lee. "The Comprehension of Indirect Speech Acts in Children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50, No.2, pp. 1-16, 2015. UCI : G704-000685.2015.50.2.008